

[14] 정 렬

자는 사결, 호는 북창이요 온양인이며 순봉의 아들이다. 품성이나 인격등 모든 면에서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심리철학에 대한 수양을 쌓고 배우기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하는 면에서나 행위에는 언제나 실수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항상 정의로운 입장에 서서 모든일의 옳고 그름과 사리판단에도 밝았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

그가 14살 되던해였다. 정렬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중국에 건너갔다. 난생처음 가보는 곳이라 그런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어느 청금소년이 글을 읊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동국의 진남자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북창이 곧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국에 미장부라 응답했다. 그랬더니 그 청금소년이 무색하여 물러갔다 한다.

유구국 사람들이 이상한 서기를 바라보며 찾아와 재배하며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점치매 모년 모월 모일에 중국에 가면 당연히 진인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금일은 즉 그 날이라 그대가 참 그 사람이로다 하며 기뻐 학설을 강론하였다. 북창의 성부란 학식은 천문, 지리, 의학, 복서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도 통달하리만큼 뛰어난 것이었으며 현상은 표일하여 구름에 뜬 학과 바람에 나르는 매와도 같았다.

각국의 내빈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아가 환영을 베푸니 북창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보기도문 천인이라 칭찬 받았다.

그는 19세때에 진사벼슬에 올랐으나 다시 과거에 뜻이없어 양구 괘라리에 거처하였다. 중종조 때에 포천현감에 부임하였다가 즉시 치사한 후에 세로에 뜻이 없어 은둔생활로 묵인, 10년만에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나는 이 글을 쓰고나서 정북창 선생의 슬기와 그 지혜로운 말솜씨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모든일에 앞장서서 노력하며 이나라의 곧고 바른 뿌리가 설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몇번을 거듭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해 본다.

한국의 뿌리가 되겠노라고.....